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박아 놓은 쇠말뚝 뽑기

일제시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의 정기와 맥을 말살하려고 전국 명산에 쇠말뚝을 박거나, 쇳물을 녹여 봉거나, 숯이나 향아리를 파묻었다.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경계 표시·방향 표시를 위한 쇠말뚝이 아니라, 일본의 신사 참배와 아울러 우리의 민족정기를 끊으려는 계획적인 만행이었다. 즉 풍수지리적으로 유명한 명산에 쇠말뚝을 박아 지기를 눌러 인재의 배출과 정기를 누르고자 한 것이다.

정선 각회산 쇠말뚝

정선 지역에 일본인들이 박아 놓은 쇠말뚝은 모두 2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 쇠말뚝은 정선의 각회산(角戲山)에서 뽑은 것인데, 각회산은 백두대간 중 태백산맥의 명산으로, 옛날부터 나라에서도 별채를 금지하였던 신성한 산이었고, 또 이곳을 중심으로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던 곳이다. 쇠말뚝이 박힌 곳은 여근곡(女根谷) 끝 부분으로 산에 뽑아내는 음기를 막고자 한 것이다.

쇠말뚝은 30톤 짜리 자끼 2개를 이용하여 30분에 걸쳐 뽑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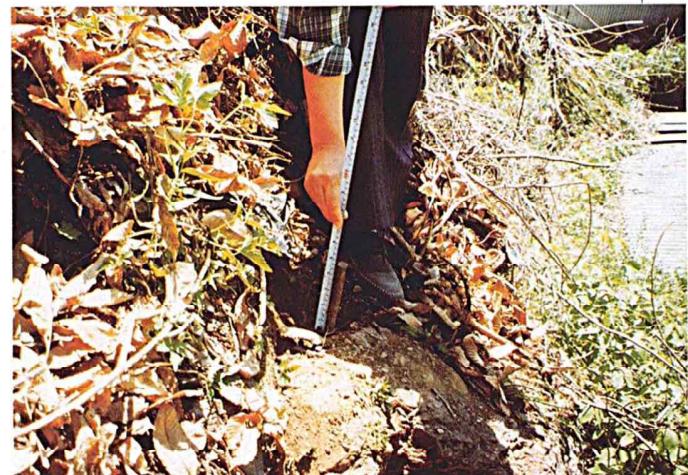


323. 정선 각회산 쇠말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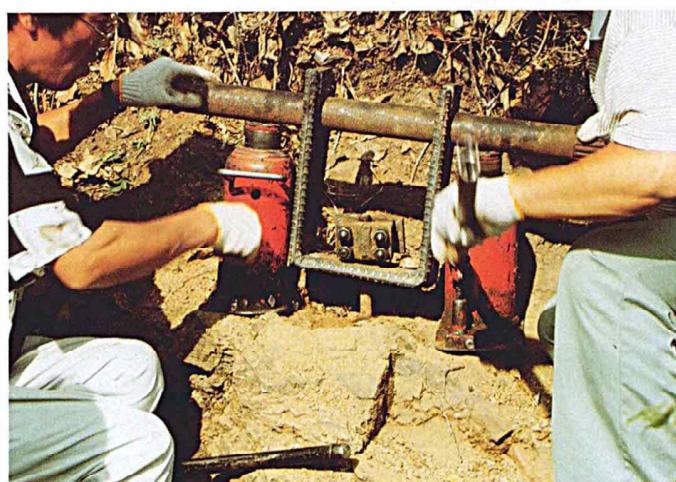
(소) 길이 42.5cm, 둘레 7cm

(대) 길이 64cm, 둘레 7cm

정선군 동면 번영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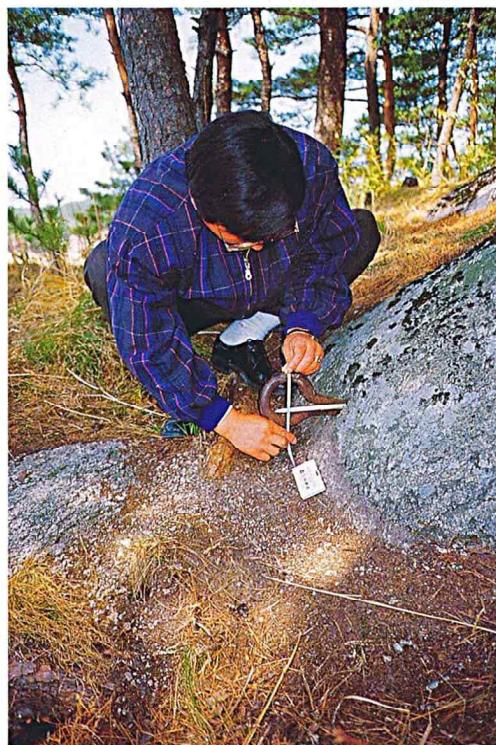


323-1. 쇠말뚝이 박혀진 상태



323-2. 자끼를 이용해 쇠말뚝을 뽑는 장면

양구·양양 지역의 쇠말뚝



324. 양양 지역에서 뽑아낸 쇠말뚝
길이 54cm, 고리지름 7.5cm, 둘레 11.5cm
양양군청 소장
양양의 쇠말뚝은 여성을 상징하기 위한
고리가 있다.

325. 양구 지역에서 뽑아낸 쇠말뚝

(대) 길이 257cm, 둘레 9cm

(중) 길이 181cm, 둘레 9cm

(소) 길이 115cm, 둘레 9cm

양구군청 소장

강원도 양구에서는 모두 세 개의 쇠말뚝을 뽑았다. 큰 것은 길이가 2m가 넘으며, 대체적으로 육각형의 형태를 띤 쇠말뚝이었다. 그 쇠말뚝 중앙에는 산의 정기가 빠지도록 구멍이 있고, 아래 부분은 잘 뽑히지 못하도록 나사식 굵은 쇠뭉치로 되어 있다.

